

“유학·취업 한방에... 석유 전문가로 보답해야죠”

산업부 자원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성과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개발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원개발 국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빛을 보고 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협회를 전담기관으로 2단계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미래 자산들이 현지의 경험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5년 가을학기에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석유대학(Petroleum Institute) 석사과정

프로그램에 5명의 국내 관련학과 학생들이 합격, 지난 2014년 2월 ‘한-UAE 에너지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본격화된 우수 인력 해외진출 프로그램이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냈다.

에너지경제는 이 같은 정부 사업을 전담 수행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협회 김종환 상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현주소 전반을, 그리고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우수학생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가을학기에 UAE 아부다비 석유대학(Petroleum Institute)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출국을 앞둔 예비 유학생 2명을 만나 소회와 각오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인터뷰 UAE 아부다비 석유대학 석사과정 합격 이재희·염수진씨

“정부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진출의 기회를 얻은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세계 유수의 학생들과 교류를 통해 안목을 넓히고 특히 향후 석유가스 개발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돌려주고 싶습니다.”

고려대 이재희 학생(26·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과 한양대 염수진 학생(24·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은 최근 산업부와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진행하는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우수학생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UAE 아부다비 석유대학 석사과정에 합격, 자원전문가로서의 꿈을 향해 첫발을 내딛으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올 8월 각각 대학을 졸업한 두 학생은 8월 말 UAE로 떠나기 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석유전문가로서의 꿈과 포부를 밝히며, 자신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 후배들을 향해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산업부의 미래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은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으로 종전의 개발대학, 학부 중심 프로그램에서 석유·가스 물리탐사, 생산공진, 비전통 자원개발 등 특정과제에 대한 대학 컨소시엄의 연구 중심 프로그램으로 개편하며 전문 인력 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아랍 에미리트(UAE)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한-UAE 에너지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청년인력 해외진출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협약 이후 성과도 하나 둘 나오고 있다. 지난해 UAE 아부다비 석유대학(Petroleum Institute) 석사과정에 자원개발특성화대학 학생 3명이 입학했고, 올해 추가로 5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유학생들은 UAE 정부로부터 등록금 면제, 기숙사, 왕복항공료, 생활비 보조금, 식비 보조금 등 석사과정 2년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사업 해외진출 학생 2억원 지원

이재희 “현장 기술 익히며 석유전문가 꿈 이루게 돼” 염수진 “이산화탄소 기술 회수율 분야 전문가 성장”

관심 갖고 관련정보 수집 영어·학점 철저한 준비를

간 학생 1인당 약 2억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교육과정을 마치고 동시에 2년간 UAE국영석유공사 등에서 현장 경험을 익히며 국내 자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그야말로 맞춤형 자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8월 최종 합격자에 이름을 올린 고려대 이재희 학생은 인터뷰에서 학부 당시 지구환경과학을 공부하며 자원개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특히 그는 석유분야에 유학의 꿈을 꾸기도 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꿈을 포기할까도 고민했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PI(석유대학)에서 학부 당시부터 관심이 있던 탄산염 저류층 등 저류층 특성화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공

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면서 “이론을 통해 배웠던 부분을 현장 실습과 기술을 익히며 세밀하게 공부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또한 한양대 염수진 학생 역시 “학부 당시 석유 광물 탐사 중 석유분야 가장 관심이 많았던 지반해부 설명회를 통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다”라면서 “실제 PI에는 EOR(석유 회수율 증진)분야에 전문 교수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기술 등을 배워 회수율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학업을 마치고 2년간 UAE의 국영석유공사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조건 역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유학과 취업의 기회를 동시에 얻게 된 셈이다. 특히 UAE 국영석유공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석유 관련 메이저사들인 셸, BP, 토탈 등에 근무할 기회도 커졌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들과 같은 영광을 거머쥐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합격자들 역시 현재의 영광을 위해서는 부단한 준비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특히 소수의 인원들만이 선택될 수 있는 만큼 경쟁역시 만만치 않다며 후배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재희 학생은 “지질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며 관심을 갖고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자격조건이 될 수 있는 영어 관련 시험은 미리 완벽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커버레터와 자신만의 이력(CV)을 만들어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것도 합격의 중요한 요소라고 당부했다.

염수진 학생 역시 영어와 학점을 강조했다. 특히 학점은 단순히 높은 것 보다 관련 PI지원학과에 대한 국내 전공과목 이수



UAE 아부다비 석유대학 석사 과정에 합격, 올 가을학기 입학을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는 염수진(왼쪽), 이재희 학생이 본지와 인터뷰 후 파이팅을 외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는 하루 아침에 준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학부 이수과목 또한 틈틈이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들 역시 프로그램 시행 초기인 만큼 현지 정보와 준비과정의 어려움이 컸

다며 향후 합격자와 지원기간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말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자원 매장량이 미미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일관된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 자원개발사업에 대

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려 불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바람도 잊지 않았다.

이승현 기자 shlee@ekn.kr
사진=민원기 기자 mwkee@ekn.kr

“자원인재 키워 현장 없는 국내 어려움 극복”

인터뷰 김종환 해외자원개발협회 상무

-자원개발특성화대학 프로젝트 진행 현황은.

산업부가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자원개발특성화대학 프로그램의 제1단계 사업(2009~2013)에는 전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포커스를 맞춰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1단계 사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인프라 구축이 주 목적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1단계 사업에서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던 현재 진행 중인 2단계부터는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장 학습 위주의 교육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향후 수요자의 요구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만들어 나가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실질적인 수행은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해외자원개발협회는 현재 산업부 정책에 맞춰 R&D(연구개발)와 연계, 관련 분야의 이론과 학습을 현장에 접목시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자원개발 전문인력양성 취지에 부합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체 전문인력양성 청사진 속에 ‘글로벌 인재양성’ 위한 해외 우수학생 해외진출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올해도 UAE 아부다비 석유대학(Petroleum Institute, PI) 석사과정에 5명을 가을학기

유학생으로 진출시키는 등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산·학연구단 중심으로 진행 중인 5개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는.

실질적인 연구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는 5개 연구과제별 주관대학들이 컨소시엄 참여 기관 및 대학들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점검을 하고 있다. 통상 연말에 사업계획이 완성되면 해당 지역 현장실사를 펼치고 상·하반기 두 차례 현장의 운영상황을 체크한 후는 물론 성과물에 대해 성과토론회도 열고 있다.

특히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협회는 기본 틀을 만들고 정부와 참여기관 및 대학들과의 삼각 틀을 만들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대학과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밑바탕으로 오는 2019년 2월까지로 예정된 2단계 사업기간 동안 총 350억 원 정도의 정부 및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참여공기업의 예산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 같은 정부 지원 속에 2차년도 계획이 끝나는 3년 후엔 인력양성과 연구개발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 될

인력양성 2단계 현장 교육 가을학기 5명...총 8명 선발 전공취업 늘어 성과 가시화 10월 인니 광물 분야 진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가시적 성과도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먼저 특성화대학의 시작 시점인 2009년 전공취업률이 학부의 경우 15%에서 지난해 27%로, 대학원 진학은 35%에서 60%대로 향상된 상태다. 주된 진출처는 주요 공기업과 해외 자원개발 사업참여 대기업 위주로 취업이 이뤄지고 있다. 석유·가스분야는 공기업이 대기업, 광물분야는 중견업체까지 진출하고 있어 향후 전망도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현재까지 학부 학생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폭 넓은 경험치가 부족해 아쉬운 부분도 있다. 향후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과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자원개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협회의 역할에 대해선.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자원개발사업 특히 해외사업 부문이 여러 측면에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전 정

부가 자주개발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문제점이 드러난 점도 일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원개발에 대한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어 아쉬움이 적지 않다.

지금도 오지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이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들이 선입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걱정되는 부분이다.

협회는 있는 그대로를 알리는 방향으로 자원 개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복안이다. 특히 힘든 상황이지만 긴 시간간 요구되는 과정이지만 자원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적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해외자원개발 인력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언급한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석유분야 전문가 육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UAE 유학생 진출을 근간으로해 오는 10월경에는 인도네시아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광물 자원분야 전문가 양성에 나서는 등 중국, 일본 등 자원개발 선진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바람이 있다면 보다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나라 자원개발 사업의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응원을 요청하고 싶다.

이승현 기자
사진=민원기 기자



해외자원개발협회 김종환 상무.